

보도자료

2013. 3. 22.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자

기획제1심의관 양재호 (☎ 3480-1214)
 기획제2심의관 나상훈 (☎ 3480-1227)

공보관실 ☎ 3480-1451

2013. 3. 22. 전국 수석부장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3. 3. 22.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우선 인사말씀을 통하여,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수석부장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
- 전국 수석부장들은, 법정언행 개선 방안 중 주요 내용들[① 개인별 맞춤형 법정 언행 컨설팅, ②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③ 동료 법관, 가족, 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④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에 대하여 논의함
- 전국 수석부장들은, 재판소구성법이 최초 시행된 날인 1895. 4. 25.을 기념하는 매년 4. 25. ‘법의 날’에 맞추어 일정 기간을 건학 활성화 캠페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수석부장들은,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이 증인신문의 준비나 신문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2013년 상반기 중에 전국 10개 지원에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의견을 같이 함
- 전국 수석부장들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교육의 이수를 요구하는 한편, 성년후견인 감독 매뉴얼에 따른 감독절차의 체계화·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의견을 같이 함

1.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씀

- ◆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 수석부장들에게,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경청을 통한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항상 유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 수석부장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

2. 법정언행 개선 방안

가. 개인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우선 실시

- ◆ 3.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자로 법관 대상으로 강의경험을 가진 강사가 다수 포진한 업체 선정
- ◆ 서울, 수도권, 중부권 법원 중 신청 법원에 대하여 법정언행 컨설팅 우선 실시
- ◆ 우선 실시 대상 법원 신청기간 : 2013. 3. 19. ~ 2013. 3. 25.
- ◆ 현재까지 6개 법원 신청
- ◆ 2013. 3. 하순 우선 실시 대상 법원 지정 예정

나.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 ◆ 각 급 법원 재판부에서 자율적으로 변호인, 증인, 당사자 등을 상대로 법정언행에 한하여 상시적으로 설문조사 ⇨ 해당 결과를 재판부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자기점검의 기회로 활용
- ◆ 광주고등, 대전지법 등 14개의 법원에서 실시해 오던 상시 설문조사 제도를 추가 확대실시하기로 함

다. 동료 법관, 가족, 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 ◆ 현재 시행 중인 각급 법원의 법정언행 모니터링은, 대체로 사전 예고 후 비교적 단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실시 후 피드백(feedback)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
-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특히 동료법관이나 가족 등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라.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 ◆ 법정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법관연수 중 상당 과정에 ‘사례를 통해 본 법관의 법정언행’,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법관의 법정언행’, ‘대화와 설득에 기초한 원만한 재판진행’ 등과 같은 법정언행 관련 강좌를 필수적으로 편성함
- ◆ 법관들로 하여금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에 참가하도록 함 ⇨ 법정언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기성찰의 기회 제공

3. ‘법의 날’ 주간 법원 견학 활성화(open court) 캠페인 실시

- ◆ ‘법의 날’ 주간을 통한 견학 활성화
 -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인 1895. 4. 25.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의 날’은 사법부에도 매우 의미있는 날임
 - ‘법의 날’ 무렵 일정 기간을 견학 활성화 캠페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체험하도록 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

4.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의 정착

- ◆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이 증인신문의 준비나 신문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인지원관이 적절한 안내와 정보의 제공, 휴식 등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고 위증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의 설치 경과

- 현재 18개 지방법원 본원에 취약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실 설치
- 2013. 기획재정부와 직제협의 결과 18명 증인지원관 정원 신설, 2013. 1.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 전담 여성 증인지원관 배치 완료

◆ 증인지원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원 인프라의 활용

- 코트넷에 증인지원관, 증인지원 관련 업무 담당 법관 및 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개설된 증인지원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 의견교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노력
- 각급 법원에 설치된 증인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법원 내 인적, 물적 시설에 최적화된 증인지원서비스의 구축과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5. 성년후견제도 시행 준비

◆ 민법 개정으로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는 달리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에 따른 행위능력과 법률행위 대리권 범위의 설정이 가능하고, 재산관리의 권능만을 가지는 종전의 후견인과는 달리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인은 신상보호의 권한과 책무가 있음

◆ 법원이 성년후견인 선임과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짐

◆ 전문후견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친족후견인의 경우 후견인 선임 전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후견인 양성

◆ 성년후견인 감독 매뉴얼을 마련하여 감독절차의 체계화·구조화를 추진하고 성년후견인 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2013. 3. 22.(금)
전국 수석부장 회의

인 사 말 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法院行政處長

친애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을 맞아 천지에 생동의 빛이 감도는 이때,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전국 각 법원에서 원활한 사법행정 운영과 바른 재판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석부장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언제나 여러분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보고할 주요 현안 몇 가지를 소개함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정녹음 시범실시 확대, 법정언행 개선 등 법정에서의 바른 재판 구현을 위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결론의 도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부장님들께서는, 과다한 사건 수, 특이한 당사자 등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다독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경청을 통한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유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자제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법의 날 주간 법원전학 활성화 캠페인 등 국민과의 소통 관련 현안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서는 지난 3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모든 노력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러한 ‘진정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법원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떠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을 담은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굳건한 사법부 신뢰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도 최선을 다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법원 구성원 사이의 내부 소통과 화합을 위한 현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서로 화합하는 소중한 일터로서의 법원을 만드는 일 역시 우리 법원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업무 부담으로 인한 법원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증가, 법원 구성의 다양화로 인한 세대별·직책별 갈등의 대두,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다른 견해와 갈등을 포용하여 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법원장님을 보좌하여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내부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기탄없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법원의 사정을 가장 생생히 알고 계실 수석부장님들께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부장님들께서는 국민의 사법신뢰 확보라는 사법부 공통의 가치를 위하여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가 급속도로 빠르게 생성,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법부 전체 또는 전국 각 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정보는 효율적 사법행정 방안, 진정성 있는 내·외부 소통 방안과 같이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고, 사건·사고의 발생 등 초기 단계에 다각도의 대처가 필요한 사법부 위기 관련 정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전국 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 확보와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수석부장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 드물고도 어려우며 고귀한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함께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는 전국 수석부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니만큼, 그동안의 고충,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기탄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진정한 내부 소통의 모범이 되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2.

법원행정처장 차 한 성